

유로화 하락 압력 강화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

Global Strategist 김호윤(2168-7491)/유동기(2168-7497)

유로존 핵심 인플레이션 상승 신호 미약. 프랑스 극우 정당 마린 르펜 후보의 유로존 탈퇴 공약 이슈에 따른 유로존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 부각. 엘런 의장의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로 달러강세. 유로화 하락 압력 당분간 지속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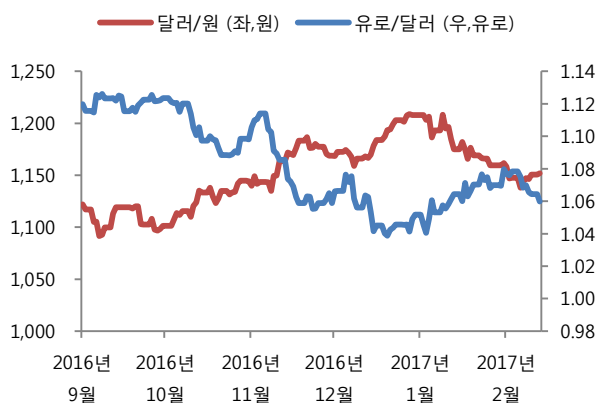
■ 트럼프 정부의 세금개편안 기대감, 달러 재강세

트럼프 행정부의 피터 나바로 국가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유로화의 가치가 매우 저 평가 됐다고 발언하며 달러화 약세를 유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유로화는 1.0800 수준까지 반등. 또한, 1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8%, 독일의 경우 1.9%를 기록하며 유로화의 반등을 지지했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개편안 발언 이후,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이 되살아나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며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는 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

■ 달러강세와 유로존의 불확실성으로 유로화 하락 압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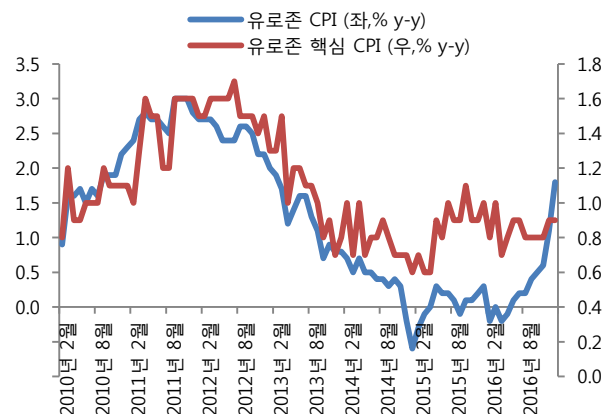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상승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유로존의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0.9%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의 4분기 GDP 성장률도 0.5%에서 0.4%로 하향 수정되며 유로화의 약세요인으로 작용.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로존 국가들의 선거가 다수 예정되어 있으며 프랑스 극우정당의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이 유로존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어 유로존 내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엘런 의장은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며 달러화 강세를 부추겨 유로화의 하락 압력 강해질 것으로 전망.

[그림1] 달러 재강세 유로화 하락 압력 강화



자료: Bloomberg, KR선물

[그림2] 핵심 인플레이션 상승 신호 미약



자료: Bloomberg, KR선물